

초기설화의 변장모티프 수용양상

—『삼국사기』·『삼국유사』를 중심으로—

鄭 俊 植*

목 차

- | | |
|---------------------|-----------------------------|
| 1. 들머리 | 3. 1. 『삼국사기』의 변장모티프
수용양상 |
| 2. 변장의 실사적 근원 | 3. 2. 『삼국유사』의 변장모티프
수용양상 |
| 2. 1. 신화·종교적 의미의 변장 | |
| 2. 2. 세속적 의미의 변장 | |
| 3. 초기설화의 변장모티프 수용양상 | 4. 마무리 |

1. 들머리

우리의 옛 서사문학에는 주요 등장 인물이 變裝이란 방법을 통해 자신의 지향가치를 달성해 가거나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이야기가 많이 보인다. 일반적으로 변장이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본체를 숨기기 위해 의복을 주요한 수단으로 삼아 性이나 身分을 위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변장은 변장주체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이 의도한 바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남을 속이기 위한 편법으로 수행하는 일종의 트릭이다. 변

* 동래여전 강사

장이 성립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경우 삼국시대까지 그 성립시기를 올려 잡을 수 있다.¹⁾ 『三國史記』 服色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시기에는 이미 身分과 性別에 따라 옷의 색깔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변장은 그 자체가 남을 속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속임의 주체와 대상 및 동인이 전제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일단 변장을 수행하고 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상태를 지속해야 하고 또 어느 단계에서는 반드시 이를 해제해야 한다. 변장이 가지는 이와 같은 속성을 고려해 볼 때, 변장의 구성 요건으로는 변장주체자, 변장동인, 변장지속과정, 변장해제동인, 변장해제 등을 들 수 있겠다.²⁾

변장에는 여러 하위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모습도 다양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논의대상 자료 속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변장의 여러 양상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변장주체자가 性을 위장하느냐 身分을 위장하느냐에 따라 우선 性變裝과 身分變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변장이란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는 반대되는 성으로 변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다시 여성이 남성으로 변장하는 男裝과 그 반대의 경우인 女裝, 그리고 남녀가 한 자리에서 서로 옷을 맞바꿔 입음으로써 상대의 성으로 변장하는 性交換變裝으로 나눌 수 있다. 신분변장이란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변장주체자가 본래의 자기 신분을 속여 다른 신분으로 보이게끔 변장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하층 신분이 상층 신분으로 변장하는 上昇變裝과 그 반대의 경우인

-
- 1) 우리나라에서 의복을 만들어 입는 생활을 영위하게 된 것은 삼국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옷감에 착색하는 기술과 함께 의복이 남녀의 性과 상하의 身分을 변별하는 중요한 수단인 것은 삼국시대에 와서 일이었다. 따라서 변장이란 것이 의복을 주요한 수단으로 삼아 이루어진다고 볼 때, 변장이 성립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도 이 때로 잡을 수 있다. (拙稿, 變裝話素의 敘事的 受容과 意味,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8-9쪽 참조)
 - 2) 물론 대상 자료마다 이들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설화의 경우 그 성격과 전개양상에 따라 이들 구성요소 중 몇몇 항목이 누락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반해 소설의 경우 이들을 온전히 구비하고 있는 경향이 설화보다 농후하다. 그러나 변장이 가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변장주체자, 변장동인, 변장지속과정이라는 세 항목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下降變裝,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옷을 맞바꿔 입음으로써 상대의 신분으로 변장하는 身分交換變裝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변장의 하위형태로는 성변장에 남장, 여장, 성교환변장이, 그리고 신분변장에는 상승변장, 하강변장, 신분교 환변장이 가능할 수 있으며, 한국 서사문학에 수용된 변장의 형태는 모두 이 중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변장의 개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변장을 변신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변장이란 본체는 그대로 두고 의복이나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해서 겉모양만 달리 보이도록 꾸미는 것을 말한다. 지구상에서 의복생활을 하는 것은 인간 뿐이기 때문에 변장주체자는 원칙적으로 인간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변장은 변장주체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변신은 형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것으로 변하는 신체의 변화를 말하며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가 변신주체자로 등장한다. 그리고 변신은 변장에 비해 소극적·수동적·타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양자 사이의 이 같은 차이는 변신이 인간과 동물 및 기타 자연물 사이에 본질적 구분을 두지 않는 이른바 신화적 사유의 반영³⁾인데 비해, 변장은 인간 중심의 경험적·합리적 사고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

변장모티프는 說話, 傳, 古小說, 新小說에 이르기까지 한국 서사문학의 많은 작품에 다양한 양상으로 수용되어 있어서, 이들 모두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야와 방법이 요구된다. 그런데 변장이 속임의 한 편법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지만, 애초에 인간이 변장을 관념하게 된 데에는 이 보다 근원적인 어떤 배경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고대인들이 변장을 관념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신화적 사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런 단계에서는 아직 변장이 남을 속이기 위한 트릭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짐작된다. 한편 후대에 이르러 변장은 인간의 일상 생활에서 위기에 대처하는 방편으로, 또는 목적

3) 변신의 개념 및 변신사유에 대해 자세한 것은 다음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이상일, 『변신설화의 이론과 전개』(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8) : 김미란, 『고대소설과 변신』(정음문화사, 1984) : 정상진, 『한국 서사문학의 변신연구』(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서사문학에 수용된 변장은 주로 후자적 의미의 변장이다. 따라서 변장이 변신에 비해 인간 중심의 경험적·합리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는 앞서의 지적도 이 같은 후자적 의미의 변장이란 전제를 바탕으로 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와 같이 변장은 문학 속에 수용되기 이전에 인간의 실제 생활의 필요에 의해 생겨났으며, 그것은 신화·종교적 의미의 변장술로, 또는 세속적인 속임의 한 수법으로 사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본고에서는 변장이 생겨나게 된 실사적 근원을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 보고, 『삼국사기』·『삼국유사』를 통해 초기설화에 변장모티프가 수용된 양상과 함께 그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변장모티프가 단순히 중국문학의 영향으로 우리문학에 수용되었다거나, 이를 변신모티프의 후대적 형태로 간주 해 온 기존의 단선적인 논의에⁴⁾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될 것이고, 이와 함께 이른 시기부터 변장모티프가 우리의 문학적 풍토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2. 변장의 실사적 근원

2. 1. 신화·종교적 의미의 변장

變裝이 언제부터 어떠한 목적을 위해 생겨났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그것의 기원은 고대인들의 종교적 신화적 사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구약성서』의 ‘신명기’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⁵⁾는 금지 규정이

4) 전자의 예로는 신동일·정규복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김미란·민찬 등을 들 수 있다. [신동일, 「한국고전소설에 미친 명대 단편소설의 영향」,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정규복, 「한국소설과 중국소설」, 『한국고소설론』, 아세아문화사, 1991; 김미란, 「고대소설과 변신」, 정음문화사, 1984; 민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5) 『구약성서』 ‘신명기’ 22장 5절.

있으며 이를 어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可憎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실제로 변장하는 습속이 당시에 널리 유행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중해의 키프로스섬이라든가 소아시아에서도 이같은 풍습이 적지않게 퍼져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리이스의 신화에는 반음양적 兩性具有의 특성을 지닌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시베리아의 샤먼에는 남자가 여자로 변장하거나 여자가 된다고 하는 습속이 있다.⁶⁾

고대인들의 이같은 변장 사유는 성생활의 관습에도 영향을 미쳐 성행위를 할 때 남녀가 옷을 서로 바뀌입는 풍습이 생겨나게 되었다. 고대 그리이스의 스파르타에서는 결혼을 할 때 새색시의 머리를 깎아 남장을 하게 했고, 아르고스에서는 신부에게 수염을 달게 했다는 풍습 등이⁷⁾ 이를 말해 준다. 신화에 나타나는 반음양적 성격의 분제와 관련해서 습속적으로도 남녀가 兩性을 함께 갖는 상태로 일단 복원시켜 놓고, 여기서 새삼스럽게 남자는 남자가 되고 여자는 여자가 된다고 하는 의례가 성년식이라든가 결혼식에 수반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우리의 경우 신라의 화랑제도에서 이 같은 兩性具有의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아름다운 남자들을 뽑아 곱게 분장하고, 이를 花郎이라 이름하여 받들게 했다는 기록은 남성 화랑제에 선행해서 여성 단장제(團長制)인 원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⁸⁾ 이것은 일종의 여성화 현상으로서 후대에 와서도 男巫들이 女裝을 하는 풍습으로 계승되어 갔던 것이다.⁹⁾ 女裝한 男巫들이 土族家를 출입하며 추문을 퍼뜨린다는 내용의 이 변장사건에 대해 『王朝實錄』에서는 한결같이 풍기문란의 차원에서만 바라보려고 한 것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兩性具有의 현상은 俗된 인간의 조건으로부터 超脫하는 것이요, 미분화

6) V. Y. Propp (최애리 譯), 『민담의 역사적 기원』(문학과 지성사, 1990), 150-152쪽.

V. Dioszegi and M. Hoppal, 『Shamanism in Siberia』(최길성 譯, 『시베리아의 샤머니즘』, 민음사, 1988), 289~297쪽.

7) 全圭泰, 『韓國神話와 原初意識』(半島出版社, 1985), 104~107쪽.

8) 『三國史記』卷四, 新羅本紀 四 振興王.

9) 이 같은 사실은 『高麗史』卷 99, 列傳 12, 玄德秀條를 비롯해서 『朝鮮王朝實錄』太祖 7年 4月條, 中宗 4年 6月條, 8年 10月條, 燕山君 5年 4月條, 仁宗 元年 3月條, 明宗 3年 11月條, 6年 12月條, 肅宗 14年 11月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 세계 또는 무시간적인 원초계로의 귀환이나 종교적 초월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요컨대 변장은 神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애초부터 兩性を 구비하고 있었다는¹⁰⁾ 신화적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巫俗祭儀에서 샤먼들이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이 합일된 종교적 초월상태로의 회복이라는 의미에서 변장을 수행했던 것이다.

2. 2. 세속적 의미의 변장

신화·종교적 의미의 변장과는 달리 세속적 의미에서의 변장은 인간이 눈앞에 닥친 위기를 모면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수행된 변장의 실제 사례는 곳곳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세종 때에 淫婦 於里加란 여인이 常民으로 변장하고 음행을 자행하다 유배형을 당한 사건¹¹⁾이 있었고, 서거정의 『筆苑雜記』에는 ‘세조 때의 한 사내종이 어릴 적부터 女裝을 하고 사십이 넘도록 士大夫家를 드나들다가 일이 탄로되어 臺諫이 법에 따라 논죄할 것을 청하자, 세조는 일이 애매하다 하여 이를 용서했다’¹²⁾는 기록이 있다. 중종 8년 10월에 전라도 관찰사 權弘의 狀啓에 의하면, 당시 전라도의 弊風 가운데 兩中(男巫)의 通奸이 가장 심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

- 10) 柳東植,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연세대출판부, 1975) 91쪽. 유대용의 「유구풍토기」에는 유구국 사람들이 “7월 15일에는 집집마다 등불을 켜고 남자는 여복을 입고 여자는 남복을 입고 왔다갔다하며 서로 희롱한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역 대동야승』 I, 민족문화추진회, 1989, 540~541쪽)
- 11) 義禁府啓 於里加以衣冠婦女 着常服 出入閭里 恣行淫奔 李義山引誘通奸 許波回以婢妾產 隔牆戲狎 累朔通奸 如此恣慢醜行之人 若論以常人犯奸之律 則戒後無由 依律決杖後 安置遐方 從之 (『朝鮮王朝實錄』世宗 15年 12月 辛亥條). 조선초기 士大夫家부녀자들의 음행에 관한 기록은 世宗實錄(5년 10월 을묘 조·9년 8월 계유조)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위의 於里加와 함께 成宗代에 前代未聞의 淫婦였던 於于同은 淫行을 실행하기 위해 변장이라는 흥미있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拙稿, 앞의 논문, 92~97쪽).
- 12) 『국역 대동야승』 I, 『筆苑雜記』 卷二 (민족문화추진회, 1989), 318~319쪽. 같은 내용이 李肯翊의 『燃藜室記述』別集 卷十三, 政教典故 ‘刑獄’條에도 실려 있다.

어야 함을 力說하고 있다.¹³⁾ 權弘의 이 狀啓를 계기로 『大典後續錄』에는 “兩中이라 호칭하여 女服을 變着하고 人家를 출입하는 者는 良賤의 구분없이 아울러 全家를 絶島에 入送한다”는 규정¹⁴⁾이 입법화되었다.

이 외에도 광해군 때의 한 男巫가 女裝을 하고 규방의 여인들과 혼숙·간음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처형당한 사건¹⁵⁾과 함께 후대의 기록에서도 종종 이와 유사한 사건을 발견할 수 있다.¹⁶⁾ 변장의 여러 형태 중에서 유독 女裝에 대해서만 이같은 금제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은, 애초 巫俗祭儀에서 종교적 목적을 위해 수행되던 男巫의 女裝이 후대에 와서는 淫行이라는 세속적 목적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풍기를 문란케 하는 등의 갖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男巫의 女裝淫行과 관련한 위의 실사적 기록 및 금제 조치는 당시에 변장을 통한 유행이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자 이들을 단죄하여 世人을 징계해야 한다는 강한 교훈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변장의 실제 사례가 여기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좀더 이색적인 목적을 위해 수행된 변장의 예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임진왜란 때 회군하는 明

- 13) 中宗實錄 卷19, 中宗 8年 10月 丁酉, “全羅道觀察使權弘狀啓曰 觀本道弊風 男子之稱爲居士 女人之稱爲回寺者(女人之遊寓山寺者 方言謂之回寺) 率皆不事農業 縱淫橫行 傷風敗俗 法所當禁 其中尤甚者 莫過兩中(俗云花郎男巫之稱) 凡民人之家 祀神之時 雖女巫多在 必使兩中主席 主家及參會人等 虔恭迎慰 終夕達朝 歌舞娛神 男女相雜 惰慾之談 淫媾之狀 無所不爲 令人竦聽咋舌以爲快樂 間有弱冠無髻者 則變着女服 塗粉施粧 出入人家 昏夜與女巫 雜坐堂室 乘間伺隙 奸人妻女 …(中略)… 其變服女粧 出入人家者 勿分良賤 竝除賸 全家入送 絶島 良人則爲奴”
- 14) 『大典後續錄』 卷5, 刑典, 禁制條, “兩中稱號 變着女服 出入人家者 勿分良賤 竝全家絶島入送”. 한편 『大典會通』 刑典, 禁制條에도 “變着女服 出入人家者 杖百 絶島定配”라는 비슷한 조항이 들어 있다.
- 15) 數十年前有男巫 姿容姣好 詐爲女服 出入摺紳間 混宿閨房 轉相薦譽 迹遍於京裡 人有悅其色 而強狎者 始覺其妄 遂伏法 醜聲多播也 (李瀾, 『星湖僿說』 卷十三, 人事門 ‘男巫女服’條). 이는 광해군 14년 10월 9일조에 실려있는 男巫 福童의 음행사건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사건이 「계서야담」에 「光海時男巫福童」이란 제명으로 실화화되어 있다. 男巫의 女裝에 대한 기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교적 의미의 변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淫行事件과 결부되어 있는 독특한 예라 하겠다.
- 16) 『패관잡기』의 ‘舍方知’와 『稗林』의 ‘一常漢’에 대한 기록 등은 實事의 根源을 지닌 이야기로서, 女裝한 상태에서 淫行을 恣行하다가 일이 탄로되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拙稿, 앞의 논문, 같은 곳).

兵이 京城의 여인들을 男服으로 변장시켜 몰래 데리고 간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禁斷해야 한다는 黃州牧使 李慶濬의 牒呈¹⁷⁾과 함께, 왜적들이 우리나라의 복장으로 變裝하고 輕騎로 기습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복장이 수상하거나 언어가 황당한 자가 있으면 각별히 기찰하도록 해야한다는 宣祖의 傳敎¹⁸⁾ 등에는 전쟁이란 상황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장의 여러 사례가 나타나 있다. 肅宗 14年(1688) 3월에 발생한 彌勒信仰事件의 概況을 보면, 주모자 呂還의 妻 元香(일명 龍女夫人)이라는 무당이 擧事가 일어나자 남자의 옷으로 변장한 뒤에 말을 타고 경성에 입성했다는 기록이¹⁹⁾ 있다. 이는 봉건적 신분의 질곡에 허덕이던 한 여인이 변장을 하고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한 역모에 적극 가담한 예라 하겠다.

한편 조선후기 천주교의 교세가 날로 확장되어 갈 무렵(1801년), 중국에서 온 周文謨 神父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男裝을 하고 사방으로 그를 찾아다녔던 姜完淑과²⁰⁾ 함께 자신의 童貞生活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男裝한 상태로 집을 나와 도망갔던 尹占惠를²¹⁾ 통해서 천주교의 信仰活動과 守貞生活을 위해 변장을 수행한 예를 더듬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세속적인 변장의 실제적인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변장은 문학 속에 수용된 흥미 있는 모티프이기 이전에, 인간의 삶에서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 수행되어 온

17) 『宣祖實錄』 卷41, 宣祖 26年 8月 6日.

18) 『宣祖實錄』 卷84, 宣祖 30年 正月 22日 癸丑.

19) 『肅宗實錄』 卷19, 肅宗 14年 8月 1日 辛丑條 및 『推案及鞫案』 97冊, 「逆賊呂還等推案」 8月 6日條 罪人元香更推白等.

20) 姜完淑은 조선후기 영·정조 때(1761~1801)의 여인으로 한국 천주교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그녀는 당시 明道會 여회장으로 있으면서 다양한 선교활동을 펼쳤으며, 士族家의 부녀자들을 입교시켜 일종의 童貞女들과 寡婦들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한국 종교사상 修道會의인 성격의 단체를 처음으로 조직한 인물이다. 그녀는 辛酉迫害(1801년)때 주문모 신부를 6, 7년 동안이나 자신의 집에 피신시키면서 당시 한국 교회의 모든 일처리를 순조롭게 해냈으며, 불굴의 의지로 신앙을 지키다가 殉教로써 마지막 생애를 장식하였다. [Ch. Dallet(安應烈·崔奭祐 譯), 『韓國天主教會史』上(韓國教會史研究所, 1980), 79~98쪽]

21) 尹占惠는 1795년에 순교한 尹有一의 사촌 누이로 평생을 동정녀로 살면서 강완숙을 도와 선교활동 및 처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다가 신유박해 때 강완숙과 같은 날 순교하였다. [앞의 책, 510~512쪽 및 金玉姬, 『韓國天主教女性史』 I (한국인문과학원, 1984), 124~128쪽 참조]

속임의 한 방편이었다. 한국 서사문학에 수용된 변장은 신화·종교적 의미의 변장보다는 세속적 의미의 변장이 본령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변장이라 할 때는 후자의 의미로 한정해서 사용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 변장에 관한 實事의 기록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인들에게 매우 신기한 사건으로 비취졌을 것이며 이것이 일정한 기회에 흥미있는 문학의 소재로 수용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위기에 처한 당사자들이 변장이라는 기지와 재치를 십분 이용해서 기이하고 교묘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등 흥미 중심의 유희적 요소가 첨가·확장됨으로써 사실 전달 중심의 實事가 허구적인 說話로 변모²²⁾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초기설화의 변장모티프 수용양상

인간의 의복생활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인지가 발달한 시대라면 변장이란 속임의 수법도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다고 보는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이같은 변장의 구체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의 경우, ① 신라 진평왕 때 柒宿와 함께 반역을 도모하다 일이 탄로되어 도망간 石品이 처자가 보고싶어 나무꾼으로 변장한 사실과,²³⁾ ② 고구려 산상왕이 酒桶村女를 보고싶어 微服을 하고 가서 그녀와 정을 통했는데, 왕후가 이 사실을 알고 죽이려 하자 酒桶村女가 남복을 입고 도망했다는 기록²⁴⁾ 및 ③ 都彌說話에서 개루왕이 도미치의 정절을 시험하기 위해 近臣을 왕의 복색으로 변장시켜 도미에게 보내자, 접탈당할 위기에 처한 도미가 자기 대신 제집종을 변장시켜 왕을 모시게 했다는 이야기가²⁵⁾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그리고

22) 李憲洪, 朝鮮朝 訟事小説 研究(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32~40쪽 참조.

변장설화의 실사적 근원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작품에는 金堤上, 於于同, 舍方知, 一常漢 등이 있다.(拙稿, 앞의 논문, 92~97쪽)

23) 『三國史記』 卷四 新羅本紀 眞平王 五三年 五月條.

24) 『三國史記』 卷十六, 高句麗本紀 山上王 12年 11月條.

25) 『三國史記』 卷四八, 列傳 八 都彌條.

『삼국유사』의 경우, ④ 金堤上이 보해왕자를 구하기 위해 “變服入句麗”²⁶⁾ 했다는 기록과 함께, ⑤ 문무왕의 庶弟 車得公이 재상이 되기 전에 “着緇衣 把毳毳 爲居士形”²⁷⁾ 하고 국내를 潛行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제 이들을 차례로 검토하면서 초기설화에 변장모티프가 수용된 양상과 함께 그 의미를 짚어보기로 한다.

3. 1. 『삼국사기』의 변장모티프 수용양상

①의 경우 변장주체자 石品은 당시 아찬이란 관직에 있던 사람이다.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으나 석품은 이찬 칠숙과 함께 반역을 도모하였다. 당시 신라는 백제 및 고구려로부터 잦은 침공을 받았고 나라 안에서도 여러 변고가 있던 때라서 대내외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는데²⁸⁾ 이러한 틈을 타서 반역을 도모하다 적발되었으니 주모자가 온전할 리 없다. 왕은 칠숙을 잡아 그의 九族과 함께 처형했지만, 석품은 백제 국경으로 도망했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석품은 낮선 땅에서 妻子를 보고싶은 생각이 간절한 나머지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어 叢山까지 왔다. 석품은 그곳에서 한 나무꾼을 만나자, 낮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으로 변장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의 변장은 손쉬우면서도 일견 치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나무꾼과 옷을 맞바꾸어 입는 신분교환 변장을 수행하고 나서는 나뭇짐까지 짊어지는 주도면밀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무꾼으로 신분을 가장하고 집에 갔던 석품은 즉시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

반역이라는 행위가 갖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석품이 맞이한 사형이라는 최후는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의 변장이 좀더 치밀했다라면 그와 같은 비극적 결말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목적이야 어떻든 남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제대로 된 변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적절한 예가

26) 『三國遺事』 卷一 紀異 第二, 奈勿王 金堤上條.

27) 『三國遺事』 卷二, 文武王 法敏條.

28) 진평왕 즉위 중에는 신라가 백제 및 고구려로부터 잦은 침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왕 24년·25년·30년·36년·38년·45년·46년·48년·49년·50년) 나라 안에서도 갖가지 변고가 발생해서 상서롭지 못한 일들이 뒤따르곤 하였다.(『三國史記』 卷四, 新羅本紀 眞平王條 참조)

된다.²⁹⁾ 이 설화가 가져다 주는 의미는 정권탈취라는 가장 극단적인 일을 도모하려다 실패한 인물이 妻子息을 만나 보겠다는 가장 인간적인 본능의 실현을 위해 죽음까지 감수했다는 데 있다. 변장은 석품이 가족을 만나러 가기 위해 신분을 위장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기밀이 유출된 탓인지 그는 불잡혀 사형에 처해지고 말았다. 애초의 변장동기가 달성되지 못한 것은 아직 변장모티프가 작품의 구성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는 고구려의 山上王과 그의 小后인 酒桶村女와의 만남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다. 왕 12년 겨울(음력 11월)에 郊祭에 쓸 돼지가 도망해서 주통촌에 이르도록 이를 맡은 자가 붙잡지 못했는데, 그곳의 한 아리따운 여자가 웃으며 앞질러 가서 잡은 다음에야 겨우 돼지를 잡을 수 있었다. 왕이 이를 듣고 이상히 여겨 미복으로 주통촌녀의 집에 가서 그녀와 관계했다. 그 전에 주통촌녀는 왕에게 아이를 잉태하면 자기를 버리지 않겠다는 허락을 받아 두었다. 왕후가 이 사실을 알고 몰래 군사를 시켜 그녀를 죽이려 하자 주통촌녀는 남북으로 변장하고 달아났다. 결국 그녀는 붙잡혔으나 뱃속에 든 왕의 아이 때문에 왕후도 그녀를 죽이지 못했다. 후에 그는 아들 교체를 낳아 자기는 小后가 되고 아이는 태자를 거쳐 동천왕이 되었다.³⁰⁾

이 설화에서 변장주체자는 왕과 주통촌녀 두 사람으로 되어 있다. 도망간 돼지를 주통촌녀의 신이한 도움으로 잡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산상왕은 그녀를 만나보기 위해 微服으로 변장한다. 앞뒤 이야기의 정황으로 보아 왕은 後嗣를 얻을 목적으로 그녀를 찾아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왕의 경우 夜行이라는 상황을 제외하면 변장을 해야 할 필연적인 동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³¹⁾ 이에 비해 주통촌녀의 변장은 다급한 상황에서禍를 피하기 위해 수행된

29) 필자는 한국 서사문학에 나타난 변장과정의 한 표본을 고소설 〈정도령전〉에서 찾아 소개한 바 있다. 이 작품에서 박춘경은 감팔철을 女裝시키면서, ① 머리를 감아 빗겨 사양머리를 짜고, ② 女服으로 改着하고, ③ 얼굴에 화장(연지·분)을 하고, ④ 젓가슴을 부풀어 오르게 치장하고, ⑤ 고운 초혜를 신게 하는 등 복잡하고 세밀한 변장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옷만으로는 완벽한 변장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증거라 하겠다.

30) 『三國史記』 卷十六, 高句麗本紀 山上王 12年·13年條.

31) 이 이야기를 왕이 變裝하고 순행나간 이야기의 원형으로 보고 이런 각도에서

것이다. 자신과 왕이 관계한 사실을 안 왕후가 주동총녀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男裝한 채 도망하던 그녀는 곧바로 군사들에게 잡힘으로써 애초의 변장동기를 성취하지 못하고 만다. 그녀가 살아난 것은 뱃속의 아이 때문이지 변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처럼 이 설화에는 변장주체자가 두 사람 등장해서 각각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변장을 수행했지만 변장모티프가 작품의 구성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지 못하고 아직 삼화적 차원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③도 변장주체자가 두 명이라는 점에서 우선 주목된다. 사건에 관련된 두 대립 당사자의 하인이 그들 대신 변장을 수행하는 이같은 예는 앞의 경우와도 다르고 다른 자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작품만이 갖는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³²⁾ 도미설화는 개루왕이 도미처의 절행을 시험하고자 하는 데서 문제가 발단된다. 물론 그 전에 왕이 도미를 불러 도미처의 절행도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식의 말을 건넌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도미는 자신있게 아내의 절행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도미처에 대한 개루왕의 훼손음모는 여기서 시작된다. 개루왕은 왕의 권위를 이용하면 충분히 도미의 아내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내심으로는 도미를 마음껏 비웃었을지도 모른다. 개루왕은 近臣을 시켜 왕의 복색으로 변장하게 하고는 도미의 집으로 보냈다. 近臣은 도미의 처에게 도미와 내기를 해서 이겼으므로 너를 데려다 궁녀로 삼겠다 하고는 그녀를 겁간하려 들었다. 도미처는 옷을 갈아입는다는 핑계로 방을 빠져나와 여종을 변장시켜 대신 들여보냈고, 近臣은 이러한 계교에 감쪽같이 속고 말았다.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口碑로 전해지는 ‘00大王 夜巡記’류의 설화에서 처럼, 그것은 단순히 왕이라는 신분 때문에 변장을 수행한 것일 뿐 변장 자체가 이야기 속의 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 32) 性交換變裝이나 身分交換變裝의 경우도 필연적으로 변장주체자가 두 사람 등장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예는 설화나 고소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의 변장주체자 두 인물은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립·갈등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위의 ③은 대립·갈등의 관계에 있는 두 인물이 각각 자기의 하인을 변장주체자로 등장시켜 그들에게 임무를 대신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자의 예와 확연히 구분된다.

이와 같이 도미설화의 전반부에는 왕과 도미처의 역할이 近臣과 계집종에 의해 대신 수행되고 있다. 원래는 왕으로 변장한 近臣으로 하여금 도미처를 폐절시킬 목적이었는데, 그에 맞서 도미처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집종을 변장시켜 왕을 모시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왕과 도미처의 역할을 近臣과 계집종이 대신 수행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따라서 도미처의 변장목적에 성공한 반면 왕의 변장목적은 실패를 한 셈이다. 왕이 도미의 두 눈을 뽑고 배를 태워 강물에 띄운 것은 순전히 도미처에게 속은 것에 대한 분풀이였다. 물론 왕을 기만한 죄로 다스릴 수 있는 명분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도미에 대한 개루왕의 행위는 분명 개인적인 분풀이 이상의 것이 아니다.

대리인의 변장을 통한 왕의 폐절음모에 대해 변장이라는 기지로써 위기를 넘긴 도미처는 또 한번 개루왕을 통과하게 속여넘김으로써 최고 통치자의 권위를 마음껏 조롱하고 있다. 도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뒤 왕이 도미처를 끌어들여 간음하려 들자, 도미처는 월경으로 몸이 더러워졌으니 다른 날을 기다려 모시겠다 하고는 틈을 보아 멀리 도망했던 것이다. 이처럼 도미처는 왕과의 두 번에 걸친 대결에서 승리함으로써 최고 통치자의 부당한 욕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있다.

도망한 도미처는 泉城島에서 우연히 남편을 만나 함께 고구려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고구려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구차한 나그네 생활로 일생을 마쳤다는 결말부의 가치전도된 현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것은 왕과의 두 번에 걸친 시험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것에 관계없이 횡포자 왕은 여전히 존귀할 뿐이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은 보잘 것 없는 백성(編戶小民)뿐이라는 강한 주제의식을 드러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도미설화는 앞의 두 이야기에 비해 구성이 치밀할 뿐만 아니라 작품 내에서 차지하는 변장모티프의 기능도 훨씬 확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도미처에 대한 왕의 폐절음모가 변장을 통해 구체화되는 한편 여기에 대응하는 도미처도 또한 변장이라는 동일한 방법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났던 것이다. 왕의 변장을 통한 폐절 시도가 실패하고 도미처의 변장을 통한 위기 극복이 성공했다는 결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미설화는 선악판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善者は 小民인데 비해 惡者は 王이라는 신분상의 차이 때문에 오히려 善者인 도미부부가 비

참한 결말을 맞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결말방식을 통해 독자들은 왕의 횡포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가지는 반면 도미의 정절에 대해서는 칭송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된다. 아울러 변장모티프는 작품의 구성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음은 물론 주제의 형성에도 효과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2. 『삼국유사』의 변장모티프 수용양상

④는 金堤上이 고구려에 볼모로 간 奈勿王의 아우 寶海를 구해오기 위해 신분을 위장할 목적으로 “變服入句麗”했다는 내용이다. 비록 단편적인 기록이지만 변장주체자의 변장동기가 달성되는 설화의 좋은 예가 된다. 이를 『삼국사기』 열전에 실린 박제상 설화와 비교해 보면 『삼국유사』의 김제상 이야기에 변장모티프가 수용되는 구체적인 모습의 일단을 더듬어 볼 수 있다. 전자에서는 그가 고구려로 갈 때 “以聘禮入高句麗”³³⁾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고구려 왕을 예방하고 당당하게 末斯欣을 데려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이 부분이 “變服入句麗”로 바뀌어 나타난다. 그가 寶海를 구해오는 것도 은밀한 계획을 세워 탈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구려 왕이 이를 알고 군사를 시켜 뒤쫓기까지 하였다.

김제상의 변장동기는 국경을 넘어 고구려로 무사히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나라에 볼모로 잡혀 간 보해 왕자를 무사히 탈출시키기 위해서였다. 김제상은 변장이란 속임의 수법을 통해 국경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고, 치밀한 계획하에 탈출을 시도하여 보해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오는 데 성공했다. 이는 변장주체자의 변장동기가 성취된 적절한 예가 된다. 이처럼 『삼국유사』의 김제상 설화는 한 나라의 왕자를 구하는 국가적인 大事에 김제상이란 인물이 변장주체자로 등장하여 변장이라는 효과적인 방식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삼국유사』의 김제상 설화는 『삼국사기』의 그것에 비해 기이하고 흥미로운 사건으로 재구성됨으로써 동일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한 차이를 가지

33) 『三國史記』 卷四五, 列傳 第五 朴堤上條.

게 되었다. 이는 『삼국사기』의 박제상 설화가 實事に 좀더 충실한 기록인 반면, 『삼국유사』에서는 일연이 이 부분에 변장모티프를 임의로 삽입시킨 결과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한다. 동일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져 가는 모습을 변장모티프의 수용유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예라 하겠다.

⑤는 문무왕의 庶弟인 車得公이 재상이 되기 전에 居士의 형상으로 변장하고 국내를 巡行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문무왕이 車得公에게 재상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자 車得公은 “몰래 국내를 다니면서 민간의 勞逸과 조세의 輕重과 관리의 淸濁을 살핀 뒤에 벼슬에 나아갈 것”³⁴⁾이라 하여 왕의 허락을 받는다. 그가 居士로 변장하고 武珍州에 이르자 그곳의 관리인 安吉이 그를 극진히 대접하였다. 車得公이 異人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安吉에게 있어서 車得公의 변장은 아무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것이다. 安吉은 자기의 세 부인에게 居士를 모시고 자는 자와 죽을 때까지 함께 살겠다는 말을 한다. 두 妻는 거절하고 한 妻는 이에 응해 車得公에게 하룻밤 봉사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車得公에 대한 安吉의 知人之鑑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安吉과 그의 처를 통해 드러난 신라인의 女性觀의 일단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둘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車得公이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安吉은 지인지감 능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범한 인물임을 간파하게 된다. 자기 아내를 車得公에게 제공한 것도 자신의 보잘 것 없는 처지를 개선해 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상인 것 같다. 신라시대 여성들의 생활은 비교적 자유로워서 여성의 정절관념이 크게 문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³⁵⁾ 이처럼 安吉이 車得公에게 妻를 제공한 행위의 이면에는 지방관이 출세를 노려 서울에서 온 珍客에게 아첨하기 위한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 훗날 安吉이 수직 당번으로 서울에 올라가

34) 『三國遺事』 紀異 第二, 文武王 法敏條.

35) 文獻에 나타난 단편적인 기록을 보면, 신라인들은 野合, 再嫁 등의 婚俗과 함께 여성의 정절관에 있어서도 貞婦가 있는 반면 위의 자료에서처럼 아내에게 珍客을 접대하게 한다든가, 아내의 不貞한 장면을 목격하고도 출추며 물러날 정도(處容)였으니 당시인들에게는 貞節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 같다 [金用淑, 『韓國女俗史』(民音社, 1989), 25~33쪽 참조].

재상이 되어 있는 車得公을 찾아갔을 때 車得公이 왕에게 지난 일을 사실대로 말하여 武珍州 上守³⁶⁾에게 燒木田의 경영권을 넘겨준 것을 보아 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車得公 설화에 수용된 변장모티프는 단순히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수행한 것으로 앞서 살펴 본 산상왕의 微服夜行과도 닮아 있다. 따라서 변장모티프가 사건 속에 깊이 관여하지 못하고 삽화적 차원에 머물러 있지만 이것이 知人之鑑모티프와 결부되면서 흥미있는 소재로 발전될 가능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비교적 이른 시기의 설화 자료인 『삼국사기』·『삼국유사』에 변장모티프가 수용되어 있는 점에 주목해서 그 수용의 구체적인 양상과 함께 의미를 검토해 보았다. 다섯 작품에 이르는 이들 설화는 모두 변장모티프를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텍스트 내에 관여하는 정도나 기능 및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기설화에 수용된 변장의 형태는 모두 신분변장에 한정되어 있으며, 도미 설화를 제외하고는 작품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변장모티프의 기능이나 의미 및 주제와의 관련정도가 아직 미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 이른 시기의 우리 서사문학에 변장모티프가 다양한 양상으로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후대의 조선조 소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변장모티프가 중국 문학의 영향으로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앞서 살펴 본 대로 이른 시기부터 우리의 문학적 토양에서도 변장모티프가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4. 마무리

지금까지 검토한 것을 요약 제시함으로써 마무리를 대신한다.

36) 武珍州에서 서울(慶州)로 쫓살이 가는 자를 이르는 말(『三國遺事』紀異 第二, 文武王 法敏條)

변장은 신이하고 흥미로운 문학적 제재이기에 앞서, 인간의 삶에서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수행되어 온 속임의 한 방편이었다. 변장이 처음 생겨나게 된 배경을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은 고대인들의 신화·종교적 사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대인들은 신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애초에는 양성을 구유하고 있었다는 관념에서, 남자는 여장을 하거나 여자가 남장을 하는 풍습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무속 제의에서 사면들은 곧장 여장을 하거나 여자가 된다고 관념하게 되었는데, 이는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이 합일된 종교적 초월상태로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세속적인 의미의 변장은 이보다 훨씬 후대에 생겨난 것으로, 인간이 눈앞에 닥친 위기를 모면·극복하기 위함이거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행된 것이다. 우리의 서사문학에 수용된 변장모티프는 거의가 세속적 의미의 변장이다.

『삼국사기』·『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초기설화에 변장모티프가 수용된 양상과 의미를 살펴 보았다. 『삼국사기』에서는 신라 진평왕 때 반역을 도모했던 石品の 變裝, 山上王과 酒桶村女의 變裝, 도미설화에서 近臣과 都彌妻의 變裝 등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서는 金堤上의 變裝, 車得公의 變裝 등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른 시기의 설화에 수용된 변장이기에, 도미설화를 제외하고는 아직 변장모티프가 작품 내에서 차지하는 기능이나 의미 및 주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변장의 형태도 모두 신분변장이라는 한 가지 방법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도미설화에서는 도미처를 체절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루왕의 近臣이 왕의 복장으로 변장하였고, 이에 맞서 도미처도 겁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계집종을 자기의 모습으로 변장시켜 왕(사실은 왕으로 변장한 近臣)을 모시게 했던 것이다. 이 설화는 체절음모의 주체와 대상이 각각 주변의 인물을 변장시켜 자기의 역할을 대신하게 한다는 흥미로운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개루왕과 도미처가 벌인 일종의 변장을 통한 시합인 것이다. 惡者인 왕의 변장동기가 성취되지 않은 반면 善者인 도미처의 변장동기가 성취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선악판별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이 시합에서 도미처가 승리하고 왕이 패했는데도, 도미처의 불행한 삶으로 결말이 지어져 있다. 이같은 전도된 결말방식을 통해 독자들은 지배자인 왕의 횡포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는 반면, 도미의 정절에 대해서는 칭송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도미설화는 변장모티프를 수용한 초기설화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옛 서사문학에는 변장모티프가 다양한 양상으로 수용되어 있으며, 이것이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실재하는 현상만큼 아직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마치 변장모티프 자체가 중국문학의 영향으로 우리의 서사문학에 수용된 것인 양 잘못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본고에서 초기설화에 변장모티프가 수용된 양상을 검토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으로 자료의 확충과 함께 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한국 서사문학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와 의의가 정당하게 자리매김 되기를 희망한다.